

부산권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구동회**

Spatial Patterns of Migration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Donghoe Koo**

요약 : 이 논문의 목적은 부산의 인구 감소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부산의 교외화에 의한 결과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7대도시 및 부산권의 인구와 가구, 그리고 시도간 및 부산권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은 서울, 대구 등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와 유사하게 인구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부산의 인구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권으로도 다수 유출되고 있으므로, 부산의 인구 감소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만 해석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 넷째, 부산의 인구는 부산권 내의 인접한 도시로 주로 유출되고 있으며, 따라서 부산의 인구 감소는 부산의 교외화, 즉 부산권의 성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요어 : 인구, 인구이동, 순이동, 교외화, 대도시권

Abstract : This study intends to demonstrate that the population decrease in the City of Busan has been resulted from the move of the city's population towards suburbs as well as the out-migration toward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grasp the pattern in the spatial shift of the Busan's population, I analyze the change of population and households within the city and the migration at the inter-regional and intra-metropolitan scal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usan has experienced population decline since 1995, as other large cities, such as Seoul and Daegu have done. Second, despite the population decrease, the number of households has been increased in Busan. Third, the residents of Busan have mostly moved not only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t also to the suburban region of Busan. This finding may well contradict the long-standing belief that the continued decrease in the Busan population could be the result of the out-migration towar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urth, the residential suburbanization in Busan can be interpreted as the extensive intra-metropolitan dispersion, which means the growth of the Busan metropolitan area.

Key Words : population, migration, net migration, suburbanization, metropolitan area

1. 서론

부산은 쇠퇴하고 있는가? 도시의 성쇠를 가늠하는 지표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 추이를 그 지표

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인구 추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산은 분명 쇠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부산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전보다 왜소해진 부산”(부산일보, 2006년 5월 19일), “계속 ‘떠나는’ 도시 부산”(부산일보, 2006년 8

* 이 논문은 2007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donghoe@pusan.ac.kr

월 18일) 등과 같은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에 비친 부산은 인구와 기능이 이출되어 점차 쇠퇴되고 있는 도시이다. 부산의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2005년 말 365만 8천 명으로 1995년 389만 3천 명에 비해 23만 5천 명(6.0%)이나 감소했다(부산일보, 2006년 5월 19일). 또한 2006년 2/4분기 인구이동 통계결과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1989년 2/4분기 이래 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전출초과'를 이어가게 되었고, 특히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3,758명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부산일보, 2006년 8월 18일).

부산의 인구이동에 대한 언론의 시각은 '사람들이 계속 부산을 떠나고 있다',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언술 가운데 전자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후자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일 뿐이다. 그러므로 두 언술을 하나의 명제로 이어서 '부산 사람들이 부산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 부분을 포함하는 언술이 되어 부분적으로만 옳은 명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시도 간 또는 도시간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인구이동의 추이와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었으며, 부산과 같은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김경수·장욱, 2001, 40-41).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부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부산의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서의택·김성일(1998)은 부산시의 인구분포 특성을 밝히고 주택공급과 인구재분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1975년부터 도심의 인구 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교외화 현상이 나타났고 1985년부터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부산의 인구가 점점 외곽으로 재분포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경수·장욱(2001)은 부산시 내부인구이동의 추이와 각 구·군별로 인구이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내 인구이동이 특정한 방향성을 띠고 있음을 밝혔다. 남광우 등(2001)은 1966년부터 1995년까지의 부산시 인구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조정과정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산은 1980년을 기점으로 교외화 단계의 전기인 상대적 분산이 진행되었고, 1990년부터 교외화 단계의 후

기인 절대적 분산이 시작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윤철현·박봉진(2003)은 1980년대 초 이후 부산시의 인구 분포패턴이 어떻게 재편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여 부산시 인구분포패턴이 중심시가지에서 외곽지역으로, 그리고 외곽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단계적 과정을 밟으면서 재편성되어가고 있음을 밝혔다.

이 논문은 부산의 인구 감소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도시(whirlpool city)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부산의 교외화, 즉 부산권 자체가 성장해가는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7대도시의 인구와 가구를 분석하여 부산의 인구 변화가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의 인구 변화와 비교할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부산권의 인구와 가구를 분석하여 부산, 울산, 경남의 인구 및 가구 추이를 살펴본다. 셋째, 시도간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산으로의 전입인구가 어디에서 유입되고 부산에서의 전출 인구가 어디로 유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넷째, 부산권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여 부산권 차원에서 부산으로의 전입인구가 어디에서 유입되고 부산에서의 전출 인구가 어디로 유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것들은 부산의 인구 감소가 한편으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에 의한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산권의 성장에 따른 인구 교외화의 결과라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1990-200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2010-2030), 인구이동통계조사(1990-2006) 등이다.

2. 7대도시 및 부산권의 인구와 가구

1) 7대도시의 인구와 가구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산의 인구 변화는 부산이라는 도시만의 독특한 현상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대도시의 일반적인 경향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인구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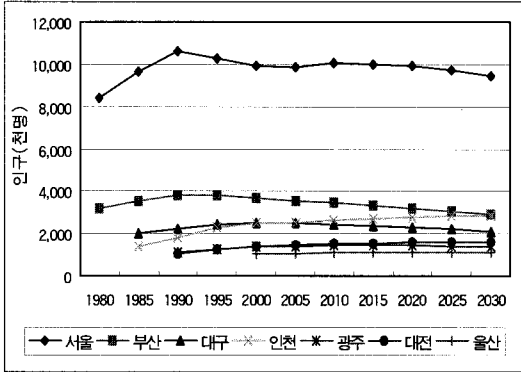


그림 1. 7대도시의 인구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1980-200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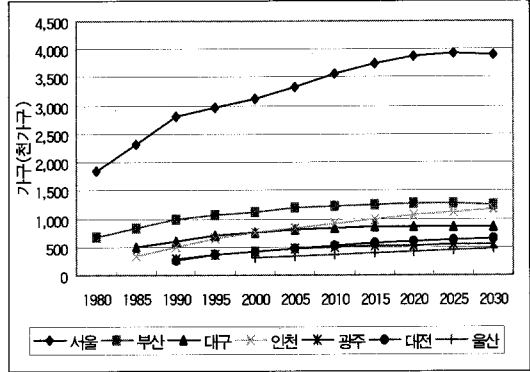


그림 2. 7대도시의 가구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1980-200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0-2030)

이를 분석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인구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의 상위 7대도시(서울특별시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인구 및 가구 추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그림 1, 2 참조).

서울의 인구는 1990년대 이후 거의 정체 상태에 있으며, 미미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해왔다. 2005년 현재 9,820천 명으로 2010년에는 10,039천 명, 2020년에는 9,896천 명, 2030년에는 9,415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의 인구는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1995년 3,814천 명을 정점으로 이후 해마다 약 1만 명에서 4만 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05년 현재 3,524천 명이며, 앞으로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3,446천 명, 2020년에는 3,189천 명, 2030년에는 2,899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의 인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2003년 2,545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5년 현재 2,465천 명이며, 앞으로도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2,431천 명, 2020년에는 2,279천 명, 2030년에는 2,102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3개 도시와는 달리, 인천의 인구는 한 번도 감소세를 보인 적이 없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고, 마침내 1999년에는 2,524천 명으로 늘어나 대구의 인구 2,517천 명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인구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다. 2005년 현재 2,531천 명이며, 앞으로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2,661천 명, 2020년에는 2,783천 명, 2030년에는 2,853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리하여 인천과 대구의 인구 격차가 약 751천 명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의 인구가 2003년부터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천은 인구 규모 3위 도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의 인구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지만, 2002년 14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2005년 현재 1,418천 명이며, 향후 2010년에는 1,450천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1,438천 명, 2030년에는 1,393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1998년에는 1,346천 명으로 늘어나 광주의 인구 1,342천 명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다. 2005년 현재 1,443천 명이며, 앞으로도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2010년에는 1,515천 명, 2020년에는 1,583천 명, 2030년에는 1,607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2005년 현재 1,049천 명이며, 앞으로 2010년에는 1,094천 명, 2020년에는 1,117천 명, 2030년에는 1,133천 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7대도시 가운데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인구 규모가 큰 도시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천, 대전, 울산 등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들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49,267천 명이며, 향후 2018년 49,340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48,635천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07b, 15). 농촌에는 도시로 이주할 인구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이촌향도형 인구가동이 도시의 인구 증가를 이끌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출산율도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할 요인은 없다.

하지만 7대도시의 가구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대도시의 인구 증감 추세와는 관계없이, 우리나라 7대도시들의 가구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도 가구는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택 수요가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인구 감소를 주택 수요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설명하는 논리가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상위 7대도시들의 인구 및 가구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인구 및 가구 변화는 부산만의 독특한 현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부산의 인구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등 상위 3대도시는 비슷한 인구 감소 및 가구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부산권의 인구와 가구

기능적인 차원에서 부산대도시권, 또는 부산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편의상 행정적인 단위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지역을 부산권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것은 마치 서울대도시권, 즉 수도권권의 경계를 서울, 인천, 경기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5년 이후 부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울산과 경남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의 인구는 2005년 현재 3,056천 명이며, 2010년에는 3,141천 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3,124천 명, 2030년에는 3,076천 명으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3 참조).

부산권의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7,660천 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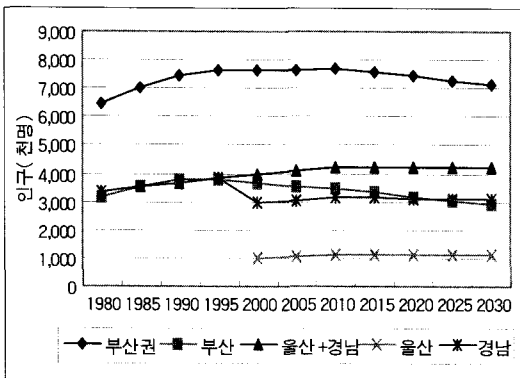


그림 3. 부산권의 인구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1980-200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2010-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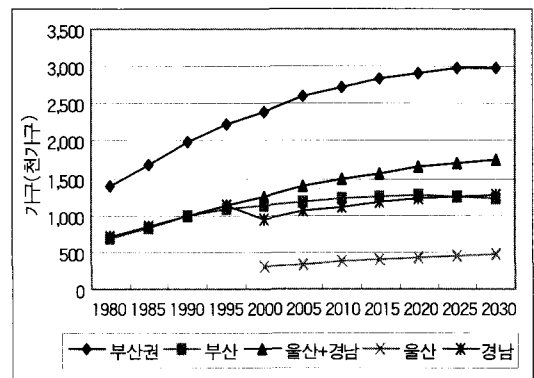


그림 4. 부산권의 가구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1980-2005);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2010-2030)

년 7,655천 명, 2005년 7,629천 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으로 반전되어 7,680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부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울산과 경남의 인구가 더욱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Klaassen *et al.*(1981, 8-28)과 van den Berg *et al.*(1982, 24-45; 1987, 84-99)의 도시발전단계론에 따르면, 부산권은 1980년-1990년 사이에 도시화 후기 단계(상대적 집중)에 있었고, 1990년-1995년 사이에 중심도시에 비해 주변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외화 초기 단계(상대적 분산)의 양상을 보였다. 1995년-2005년에는 부산권이 중심도시의 인구 감소가 주변지역의 인구 증가를 초과함으로써 부산권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여 역도시화 초기 단계(절대적 분산)의 양상을 보였고, 2005년-2010년에는 주변지역의 인구 증가가 중심도시의 인구 감소를 초과함으로써 다시 부산권 전체의 인구가 증가하여 교외화 후기 단계(절대적 분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95년 이후 부산권은 교외화 후기 단계(절대적 분산) 및 역도시화 초기 단계(절대적 분산)를 오가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역도시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가구는 인구의 추이와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울산과 경남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시도의 경우에도 가구는 증가하고 있고, 부산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에도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구는 인구의 증감과 관계없이 일정 정

도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 참조).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인구 단위보다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의 인구가 감소한다하더라도 부산에서의 주택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시도간 및 부산권의 인구이동

1) 시도간 인구이동

우리나라의 시도간 인구이동을 살펴보면(그림 5 참조),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유출인구의 대부분은 경기도로 흡수되고 있다(통계청, 2006, 10). 그림 6은 2006년 7대도시 전출자의 전입지 가운데 상위 1위, 2위, 3위를 나타낸 것이다. 7대도시 전출자의 전입지 분포를 살펴보면(통계청, 2007a, 18), 7대도시에서 전출한 사람들의 전입지 가운데 1위는 모두 인접한 시도이다. 이것은 대도시들의 인구가 주변지역으로 교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산으로 오는 인구는 어디에서 이동해오는 걸까? 부산을 떠나는 인구는 어디로 이동해갈까? 그림 7과 그림 8은 1990년부터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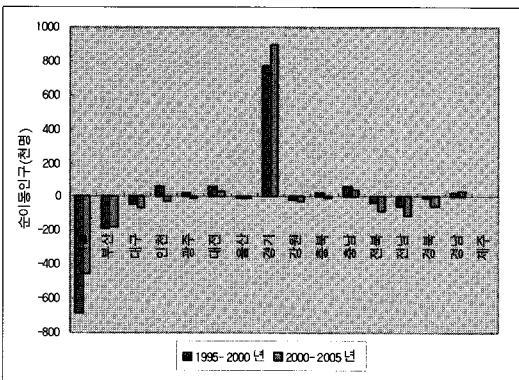


그림 5. 시도간 순이동

자료 : 인구가동통계조사(199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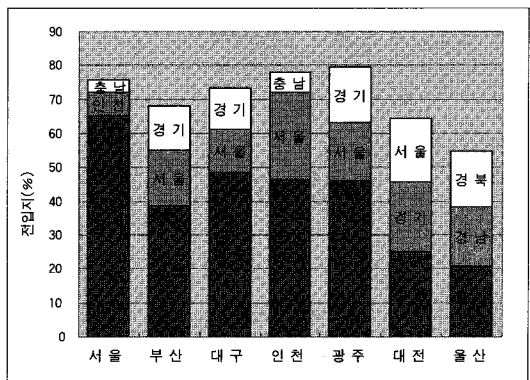


그림 6. 7대도시 전출자의 주요 전입지

자료 : 2006년 인구가동통계 결과(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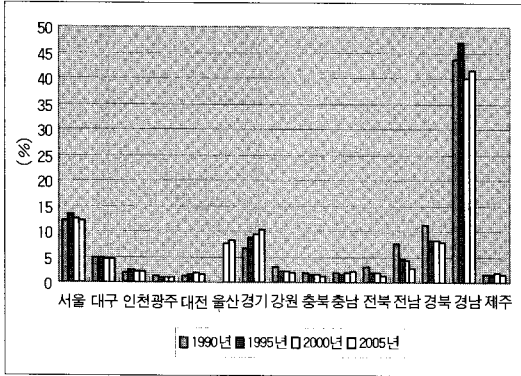


그림 7. 부산으로의 전입인구(전국)
자료 : 인구이동통계조사(199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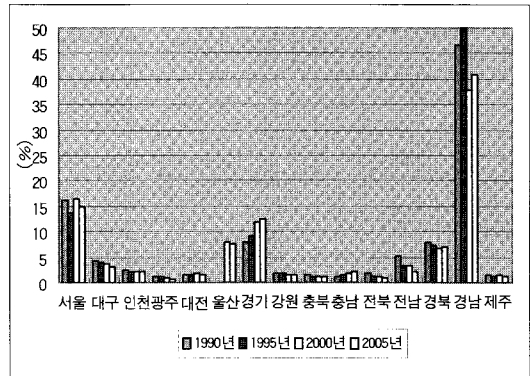


그림 8. 부산에서의 전출인구(전국)
자료 : 인구이동통계조사(1990-2005)

년까지의 시도간 인구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부산으로 전입한 인구와 부산에서 전출한 인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 부산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입자들이 경남(79,341명, 43.8%), 서울(22,005명, 12.1%), 경기(20,350명, 6.5%)에서 이주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부산 전출자의 전입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출자들이 경남(100,794명, 46.6%), 서울(34,978명, 16.2%), 경기(17,246명, 8.0%)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990년의 시도간 순이동을 살펴보면, 부산은 경남(21,453명), 서울(12,973명), 경기(5,373명)에 대하여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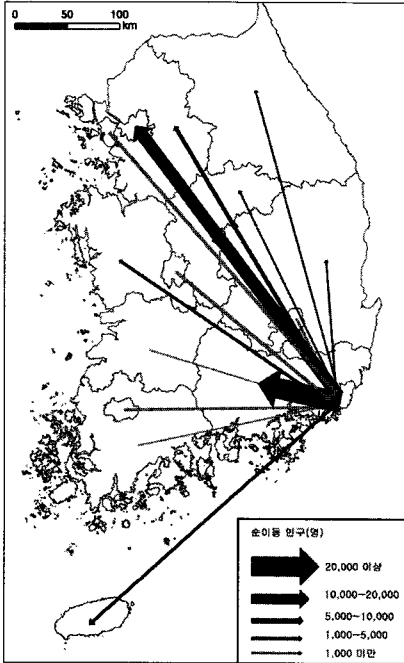
1995년 부산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입자들이 경남(60,895명, 46.8%), 서울(17,424명, 13.4%), 경기(11,534명, 8.9%)에서 이주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부산 전출자의 전입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출자들이 경남(92,245명, 49.9%), 서울(25,525명, 13.8%), 경기(17,014명, 9.2%)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995년의 시도간 순이동을 살펴보면, 부산은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남(31,350명), 서울(8,101명), 경기(5,480명)로의 전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부산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입자들이 경남(52,156명, 40.1%), 서울(15,968명, 12.3%), 경기(12,073명, 9.3%)에서 이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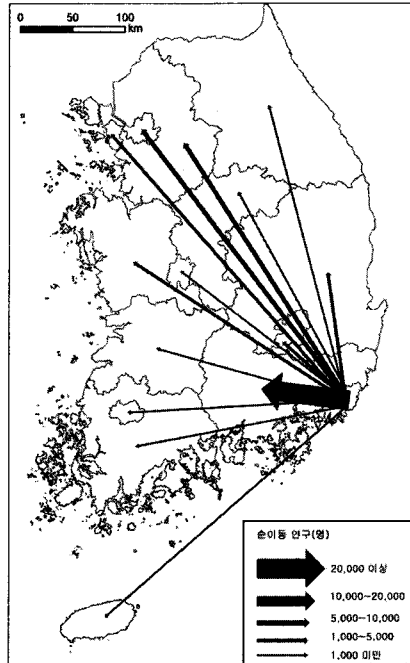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부산 전출자의 전입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출자들이 경남(65,707명, 37.9%), 서울(28,564명, 16.5%), 경기(20,758명, 12.0%)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2000년의 시도간 순이동을 살펴보면, 부산은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남(13,551명), 서울(12,596명), 경기(8,685명)로의 전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부산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입자들이 경남(54,348명, 41.6%), 서울(15,915명, 12.2%), 경기(13,514명, 10.3%)에서 이주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부산 전출자의 전입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출자들이 경남(68,659명, 40.9%), 서울(24,941명, 14.9%), 경기(21,037명, 12.5%)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2005년 시도간 순이동을 살펴보면, 부산은 대부분 전출초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경남(14,311명), 서울(9,026명), 경기(7,523명)로의 전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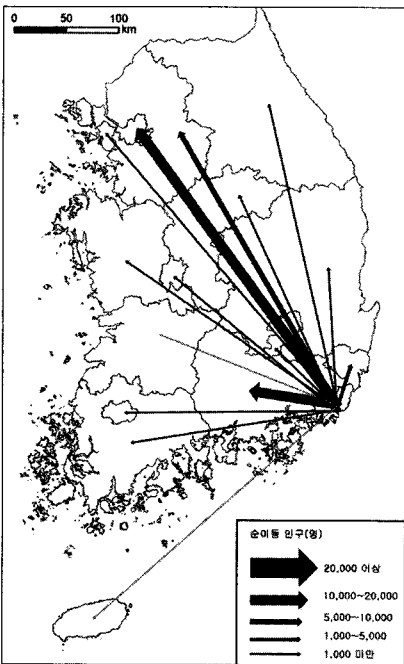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의 전입인구, 전출인구, 순이동을 분석한 결과(그림 3 참조), 부산 전입자의 주요 전출지, 부산 전출자의 주요 전입지는 경남, 서울, 경기 순이었고, 시도간 순이동 인구도 대부분 경남, 서울, 경기로 유출되는 인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부산과 수도권 사이의 인구이동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부산과 경남 사이의 인구이동이 또한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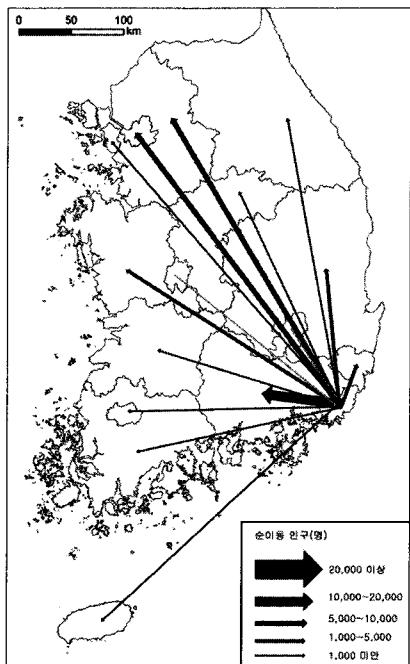
(a) 1990



(b) 1995



(c) 2000



(d) 2005

그림 9. 시도간 순이동(1990-2005)

자료 : 인구이동통계조사(1990-2005)

을 시사한다. 즉 부산의 인구이동의 한 축은 경남으로의 흐름이고, 다른 한 축은 수도권으로의 흐름이다.

총량적인 의미에서 2000년 이후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순이동 인구가 경남으로 유출되는 순이동 인구를 초과하였지만, 양자는 서로 비슷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다른 대도시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부산의 인구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권으로도 다수 유출되고 있으므로, 부산의 인구 감소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만 해석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

2) 부산권의 인구이동

부산권 차원에서 볼 때, 부산 인구는 어디에서 유입되고 어디로 유출되고 있을까? 그림 10과 그림 11은 2000년과 2005년의 부산권 인구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부산권 안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인구나 부산에서 전출한 인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부산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입자들이 김해(12,351명, 19.9%), 양산(10,221명, 16.5%), 울산(9,863명, 15.9%), 창원(5,136명, 8.3%), 마산(3,579명, 5.8%)에서 이주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부산 전출자의 전입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출자들이 김해(20,104명, 25.4%), 양산(17,858명, 22.5%), 울산(13,580명, 17.1%), 창원(5,781명, 7.3%), 마산(3,182명, 4.0%)으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2005년 부산권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부산의 주요 전출초과 지역은 김해(7,753명), 양산(7,637명), 울산(3,717명), 창원(645명) 등이다.

2005년 부산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입자들이 김해(13,609명, 20.9%), 양산(11,335명, 17.4%), 울산(10,781명, 16.6%), 창원(4,699명, 7.2%), 진해(3,501명, 5.4%)에서 이주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부산 전출자의 전입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출자들이 김해(18,628명, 22.8%), 양산(17,796명, 21.8%), 울산(12,982명, 15.9%), 창원(5,259명, 6.4%), 진해(4,950, 6.1%)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2005년 부산권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부산의 주요 전출초과 지역은 양산(6,461명), 김해(5,019명), 울산(2,201명), 거제(1,583명) 등이다.

2000년 및 2005년 부산권의 전입인구, 전출인구, 순이동을 분석한 결과(그림 12 참조), 부산 전입자의 주요 전출지, 부산 전출자의 주요 전입지는 모두 김해, 양산, 울산 순이고, 부산권의 순이동 인구도 대부분 김해, 양산, 울산 등 인접한 3개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의 인구가 부산권의 인접한 도시로 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부산의 교외화, 즉 부산권의 성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도간 인구이동 및 부산권의 인구이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부산의 인구이동은 크게 두 가지 흐름, 즉 첫째, 부산과 수도권 사이의 인구이동, 둘째,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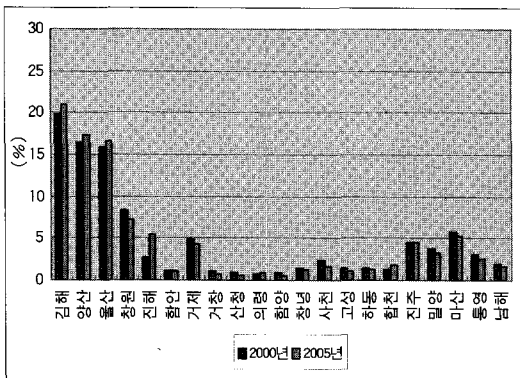


그림 10. 부산으로의 전입인구(부산권)

자료 : 인구이동통계조사(2000,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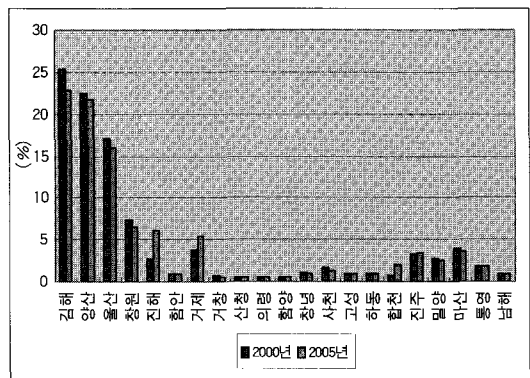


그림 11. 부산에서의 전출인구(부산권)

자료 : 인구이동통계조사(2000,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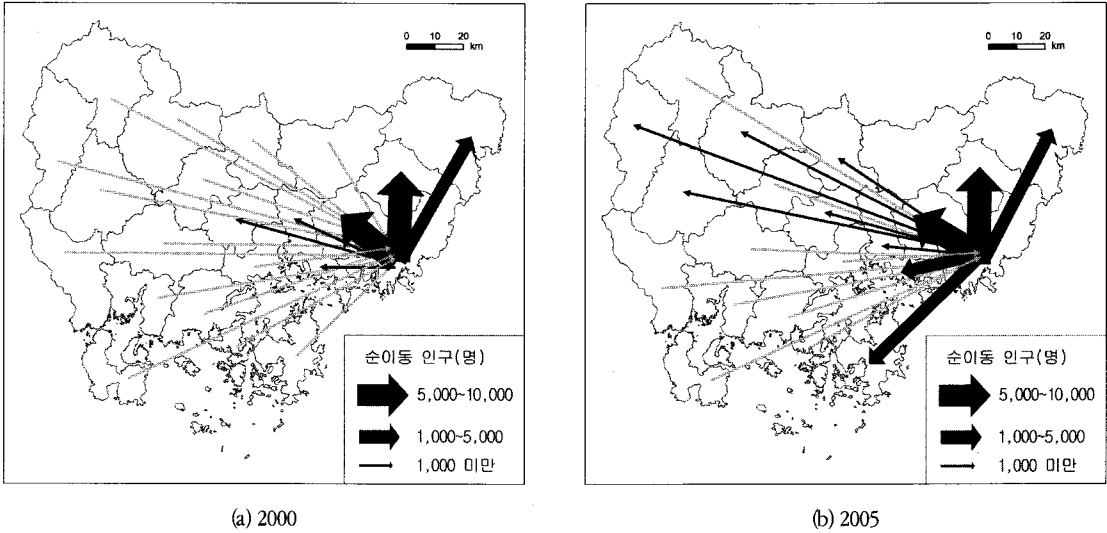


그림 12. 부산권의 순이동(2000-2005)
 자료 : 인구이동통계조사(2000, 2005)

대도시권(부산권) 안에서의 중심도시인 부산과 주변지역 사이의 인구이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도시들에서의 전출인구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각 중심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부산에서의 전출인구도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부산의 주변지역으로 이동한다. 부산 사람들이 계속 부산을 떠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만이 주로 강조되고, 각각의 대도시가 주변지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간과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부산의 인구 감소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부산의 교외화에 의한 결과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7대도시 및 부산권의 인구와 가구, 그리고 시도간 및 부산권의 인구이동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은 서울, 대구 등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

와 유사하게 인구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상위 7대도시들의 인구와 가구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인구 및 가구 변화는 부산만의 독특한 현상이라 하기는 어렵다. 부산의 인구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 부산, 대구 등 상위 3대도시는 비슷한 인구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인구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인구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둘째, 부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울산과 경남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는 인구의 추이와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울산과 경남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시도의 경우에도 가구는 증가하고 있고, 부산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의 경우에도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셋째, 부산의 인구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권으로도 다수 유출되고 있으므로, 부산의 인구 감소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만 해석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의 전입인구, 전출인구, 순이동을 분석한 결과, 부산 전입자의 주요 전출지, 부산 전출자의 주요 전입지는 경남, 서울, 경기 순이었

文獻

고, 시도간 순이동 인구도 대부분 경남, 서울, 경기로 유출되는 인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부산과 수도권 사이의 인구가동이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부산과 경남 사이의 인구가동이 또한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부산의 인구가동의 한 축은 경남으로의 흐름이고, 다른 한 축은 수도권으로의 흐름이다. 총량적인 의미에서 2000년 이후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순이동 인구가 경남으로 유출되는 순이동 인구를 초과하였지만, 양자는 서로 비슷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부산은 교외화되고 있다. 2000년 및 2005년 부산권의 전입인구, 전출인구, 순이동을 분석한 결과, 부산 전입자의 주요 전출지, 부산 전출자의 주요 전입지는 모두 김해, 양산, 울산 순이고, 부산권의 순이동 인구도 대부분 김해, 양산, 울산 등 인접한 3개 도시로 유출되는 인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의 인구가 부산권의 인접한 도시로 주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부산의 교외화, 즉 부산권의 성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시발전단계론의 따르면, 부산권은 1980년-1990년 사이에 도시화 후기 단계(상대적 집중)에 있었고, 1990년-1995년 사이에 중심도시에 비해 주변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외화 초기 단계(상대적 분산)의 양상을 보였다. 1995년-2005년에는 부산권이 중심도시의 인구 감소가 주변지역의 인구 증가를 초과함으로써 부산권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여 역도시화 초기 단계(절대적 분산)의 양상을 보였고, 2005년-2010년에는 주변지역의 인구 증가가 중심도시의 인구 감소를 초과함으로써 다시 부산권 전체의 인구가 증가하여 교외화 후기 단계(절대적 분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95년 이후 부산권은 교외화 후기 단계(절대적 분산) 및 역도시화 초기 단계(절대적 분산)를 오가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역도시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경수·장욱, 2001, “부산시 내부인구가동 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6(5), 39-55.
- 남광우·이성호·최철웅, 2001, “부산시 인구성장의 조정 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6(7), 257-270.
- 서의택·김성일, 1998, “부산시 인구분포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2), 29-49.
- 윤철현·박봉진, 2003, “부산시 인구분포패턴의 재편성 과정,” 도시행정학보, 16(2), 169-189.
- 통계청, 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인구이동, 통근·통학부분).
- 통계청, 2007a, 2006년 인구가동통계 결과.
- 통계청, 2007b,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가동통계조사.
- 통계청, 해당년도, 인구주택총조사.
- Klaassen, L. H., Molle, W. T. M., and Paelinck, J. H. P.(eds.), 1981, *Dynamics of Urban Development*, Gower, Aldershot.
- van den Berg, Leo, Drewett, R., Klaassen, L. H., Rossi, A., and Vijverberg, C. H. T.(eds.), 1982, *Urban Europe: A study of growth and decline*, Pergamon Press, Oxford.
- van den Berg, Leo, Burns, Leland S., and Klaassen, Leo H.(eds.), 1987, *Spatial Cycles*, Gower, Aldershot.
-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 교신: 구동회,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이메일: donghoe@pusan.ac.kr, 전화: 051-510-2657)
- Correspondence: Donghoe Koo,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ivision of Social Studies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e-mail: donghoe@pusan.ac.kr, phone: +82-51-510-2657)

최초투고일 07. 11. 30.

최종접수일 07. 12. 18.